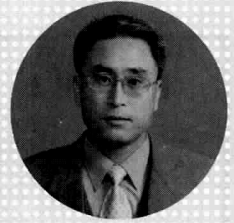


| 화제의 인물 |

노동부 산재예방유공자상 수상



신 필 환

(주)대한항공 정석비행장 보건관리자

푸른 바다 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생각나는 제주도.

제주 지역에서 18년이 넘는 시간동안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항공산업보건을 위해 종사해 온 신필환 보건관리자(대한항공 정석비행장)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6월 29일 노동부 산재 예방유공자상을 수상한 그는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추진력으로 제주지역 보건관리를 위해 애써 온 산 증인이다.

임상근무와 (주)현대산업개발, (주)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 의무실 근무를 거쳐 현재 (주)대한항공 정석비행장 보건관리자(과장)로 근무하기까지 본인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전력투구 해왔다. 그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기위해 다양한 보건교육과 작업환경관리 및 전염병 예방관리를 실시했으며, 특히 (주)대한항공 정석비행장에 근무하는 동안 공중 근무자(조종사 및 조종훈련생)에 대한 항공의학적인 감독과 안전보건활동 실시로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그는 “산업간호사는 사업장내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직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직장 환경에서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산업간호사는 자신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야한다”고 하였다. 그의 말속에서 그의 좌우명처럼 ‘혼을 다한 정성으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노력하자’는 뜻이 배어나오는 듯하다. 또한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무엇보다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IMF지나 또한번의 위기인 고유가 시대가 오고 있다. 회사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금 모든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등의 고용불안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시대가 떠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 등의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때에 신필환 보건관리자와 같은 전국 각지의 뜻있는 산업간호사들의 분투가 요구되고 있다.